

The 논술	2015 연세대 모의 인문
---------------	-----------------------

<문제 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 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로마사회가 단 한 순간도 노예제도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유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예를 결혼시키도록 허락한 일은 바람직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이것이 노예에 대한 흉포한 처벌, 형편없는 음식, 물질적·도덕적 고통, 횡포까지 바꾸어놓을 수는 없었다. 스토아학파를 비롯한 윤리주의자들도 특별히 더 나은 것은 없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눈에 노예제도는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이었으며,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불행을 맞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불행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여신이 부리는 변덕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이다. 가장 고귀한 사람도 전시(戰時)에는 노예상태로 떨어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운명의 여신의 손에 놀아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왕이건 시민이건 또는 노예이건 자기 운명에 따라 타고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인의 운명을 타고 났다면 그에 따라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언제나 나쁜 주인이나 나쁜 남편보다는 훌륭한 주인이나 훌륭한 남편을 더욱 좋게 평가했다. 철학은 이처럼 특정인이 가진 장점을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로 제시했다. 그래서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노예로 태어난 ‘비천한 친구들’의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만약 그가 노예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었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훌륭한 노예로 행동하도록 가르쳤을 것이다. 성 바울과 에픽테토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제시문 (나)

저녁 밥상을 물려 가려는데 남편이 불렀다.
 “잠시만 앉으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소.” 남편은 말 꺼내기가 어려운 듯 잠시 묵묵히 있었다.
 “나는 다시 출유(出遊)¹⁾하려 하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별 큰택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두었소.”
 “집을 판다면……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나도 모르오.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지요.”
 “무슨 해피망측한 소릴 하오? 우린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린단 말이오? 사람에게겐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걸 저

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 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엄치도 모르리라곤 생각지 않소.”

“인륜? 예의? 엄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 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서속(黍粟)²⁾이라도 꾸어다 조식봉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게 엄치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깍 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인륜이라는 거지요? 난 터무니없는 짓 않겠습니다. 분명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 자식도 없이 죽어 버리라고 하셨겠는가 말예요.”

1) 다른 곳으로 나가서 놀

2) 기장과 조

제시문 (다)

공리(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온갖 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좇는다고 할 수 있다.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그 행위가 해야 할 행위라고, 또는 적어도 하면 안 될 행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옳다든가, 적어도 그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 또는 적어도 그른 행위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해야 할’, ‘옳은’, ‘그른’ 등의 딱지가 붙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무의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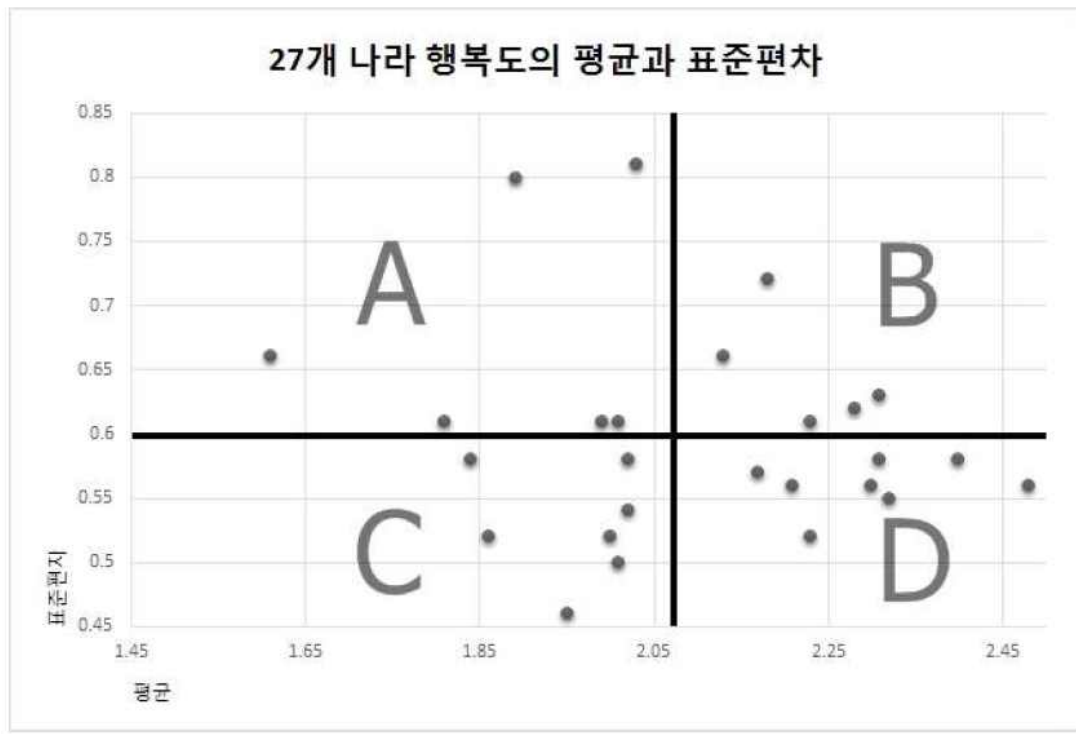
제시문 (라)

아래의 그림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도표로 요약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각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를 묻고, 그 응답을 1점(행복하지 않다), 2점(보통이다), 3점(행복하다)으로 측정하였다. 도표에서 X축은 행복도 점수의 *산술평균을 보여주며, Y축은 행복도 점수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또한 X축과 Y축은 각각의 산술평균에서 교차하고 있다 (X축의 산술평균은 2.07이며 Y축의 산술평균은 0.6이다).

* '산술평균'이란 응답자들이 답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응답자들의 수로 나누어준 값이다.

** '표준편차'란 응답자들이 답한 점수가 산술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한다.

a국가와 b국가의 행복도 점수의 평균은 같은데 a국가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국가 국민들의 행복도 정도는 더 넓게 분포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1번 문제 풀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 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 전략 구상	
2015 모의 인문 논술은 전형적인 연세대 1번 문제인 '삼자비교형'입니다. 따라서 '삼자비교형'의 기본적 구조와 원리로써 답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논지를 파악하고 각 제시문들의 논점을 다면적으로 비교하라는 문제이므로 7가지 원리 중 비판과 자료해석은 제외하였습니다.	
*Basic편의 구성은 단편적으로 그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7가지 원리를 복합적으로 각 문제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논제이해 및 개요작성(삼자비교형 답안구조)	
단락 나누기 -> 숨은 의도 찾기 -> 분량 고려 -> 핵심어 고려의 단계를 취하는 것이 Basic편의 개요작성 원리이지만 이미 삼자비교형의 전형적 답안구조에 단락 나누기, 숨은 의도 찾기, 분량 고려의 원리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 과정은 생략 가능합니다. 첫 문단만 핵심어를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는 아직 제시문들을 비교하여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자신의 답안이 개요와 완벽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개요를 작성시 미처 고려치 못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요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삼자비교형 - 3문단, 16문장의 구조]	
1문단 - 2문장 (2문장 이내의 서론)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1문장 - 행복의 본질) ②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 (1문장 - 행복에 대한 태도)	
2문단 - 7문장	
③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두괄식 구성 1문장) 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 (4문장) 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 (각 1문장, 총 2문장)	
3문단 - 7문장	
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 (두괄식 구성 1문장) ⑦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3문장) ⑧ 제시문(C)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3문장)	
3) 요약 및 비교 (다면적 기준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	
3)-1 일반적 기준 상기하기	
주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대상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가.

의도	행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도를 실현하려하는가.
결과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범위	그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3) -2 특별한 기준 세우기	
관계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3) -3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요약의 선택과 삭제원리와 결합하여)	
(가)	제시문 내용
	'노예제도는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이었으며,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불행을 맞이할 수 있었다.' '주인의 운명을 타고 났다면 그에 따라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운명론적 입장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므로 개인은 이를 노력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형태로써 행복을 추구해야한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를 찾는 것이겠죠. 각기 다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사고형 논술이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행복과 관련된 다른 관점을 통해 제시문을 바라보아야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운명론적 입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체제나 사회적 억압에 순응하여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하나 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나)	제시문 내용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제시문에서 부인은 자신을 두고 집안을 떠난다는 남편의 말에 노발대발하며 남존여비의 유교적 사상에 저항하여 차라리 자신의 팔자를 고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 개인, 타인 - 부인으로 치환) 그리고 앞서 (나)의 부인은 (가)와는 달리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체제나 사회적 억압에 당당히 맞서 그를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제시문 내용
	'공리(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 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제시문에서 공리의 원리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행복의 총합인 공리를 증대시키는 지침입니다. 따라서 공리가 커지기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을 넘어선 타인의 행복도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와는 달리 공동체의 총합에만 신경을 쓰므로 공동체의 이익의 총량이 더 커진다면 개인의 희생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3) -4 표로 정리하기			
	(가)	(나)	(다)
주체	화자	부인	화자
대상	독자	남편	독자
의도	역사적 탐구를 위하여	행복해지기 위하여	공리를 위하여
방법	주어진 운명에 순응	스스로 행복을 쟁취	타인의 행복까지 고려
결과	계급논리에의 순응		
범위	개인적	개인적	공동체적
관계	없음	있음	있음

4) 답안 작성 (논증, 요약의 재구성 및 중립적 표현의 원리와 결합하여)	
1문단	행복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문단	그러나 (가)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나)와 (다)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점에 차이가 있다. (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사회적 지위를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고귀한 사람도 노예가 될 수 있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의 여신에 의해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 또는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순응 속에서 타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고 자신의 직분을 다 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나)에서 부인은 남편이 행복을 위해 가정을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 불행으로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존여비의 유교적 사상에 저항하려는데, 이는 사회체제에 대항하여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것으로

	<p>서 (가)의 사회체제에 순응하여 행복을 찾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다)에서는 공동의 이익이 우선되어야하므로 개인적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p>
<p>3문단</p>	<p>하지만 (나)와 (다)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나)는 공동체 행복의 총합보다 행복의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반하여 (다)는 공동체 행복의 총합을 우선시한다. (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이 증가해야함을 주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개인의 행복은 일정 부분 유보될 수 있음을 말하는 듯하다. (나)의 부인은 가정의 행복의 총합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편과 언쟁을 벌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는 남편이 집을 떠남으로써 남편의 행복이 부인의 불행보다 더 커진다면 공동체 행복의 총합이 더 커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p>

2. 2번 문제 풀이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전략 구상
2번 문제는 1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문제입니다. 이는 자료해석형 문제이기에 Basic편의 자료해석의 원리로써 풀 수 있습니다. 자료해석형 문제는 보통 독립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문제를 관통하는 한 주제에 관한 자료가 출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해석형 문제는 여러 제시문을 종합하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풀어야 합니다.
원칙 1. 논술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주제와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관 시켜라.
원칙 2. 자료가 제시문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약화시키는 것인지를 판단하라 강화 - 제시문의 주장의 근거로 쓰면 된다. (논증 - 제예인 中 인용) 약화 - 제시문의 주장의 반례로 쓰면 된다. (비판 - 예시세구반범 中 반례)
원칙 3. 종합적사고를 통한 풀이를 위하여 이전의 논점을 이용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자료를 해석하여 답을 쓴다. 자료해석형문제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해석했느냐 보다는 그를 활용하여 얼마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 논제이해 및 개요작성(해석 후 역평가형 답안구조)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는 앞의 1번 문제에서 밝혀주었으므로 간단하게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복해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입장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적용 가능한 명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자료의 내용을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집니다. (제시문의 내용-> 일반적 명제 도출 -> 자료의 해석 -> 구체적 사안인 자료에의 명제 적용 후 평가) 그리고 그 뒤에, (라)의 도표를 분석할 때에는 두 가지 핵심개념인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꼭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면사고형 논술의 취지상 B, C뿐만 아니라 A와 D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건드려준다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A와 D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 Basic편의 논제이해 中 숨은의도 찾기 원리)
[해석 후 역평가형 - 4문단]
전형적 구조를 취하지 않았기에 개요작성단계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1문단
① 자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각 제시문의 내용을 명제화 ② 그에 대한 근거
2문단
③ ‘산술평균’ 과 ‘표준편차’ 를 고려한 자료의 해석 결과 (두괄식 구성 - 중간에 A와 D도 해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④ 그에 대한 근거

3문단	
⑥ 1문단에서 명제화시킨 제시문의 내용으로써 국가 A,D 를 각각 평가.	
4문단	
⑦ 1문단에서 명제화시킨 제시문의 내용으로써 국가 B, C를 각각 평가.	
3) 자료 해석 (중강약논)	
논술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주제 - '매체'의 역할	
(나)	행복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다)	공동체 행복의 총합이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나)는 공동체 행복의 총합보다 행복의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반하여 (다)는 공동체 행복의 총합을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국가는 공동체로, 행복도의 산술평균은 공동체 행복의 총합으로, 행복도의 표준편차는 형평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자료해석형은 반드시 전체 논술문제를 관통하는 주제와 연관시켜 해석해야 됩니다.	
<h3>27개 나라 행복도의 평균과 표준편차</h3>	
(라)의 자료를 분석해봅시다. 편의를 위하여 가로와 세로 선을 기준으로 세로선 좌측은 행복도 하, 우측은 행복도 상으로 정하고, 가로선 위쪽은 표준편차 상, 아래쪽은 표준편차 하로 정하겠습니다. A는 국민들 행복의 평균이 하, 표준편차가 상입니다. 행복도가 낮으면서 행복의 불평등 정도도 심합니다. (나)는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것, (다)는 행복의 총합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A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D는 행복도가 상, 표준편차가 하입니다.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며 국민들 간 행복도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나), (다) 모두 좋은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연세대가 발표한 해석에서 (다)가 B보다 D에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적힌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했기 보다는 D에 속한 국가	

들의 행복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리주의는 형평성의 문제는 상관없이 행복의 총합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연세대 측에서 이러한 점까지 고려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B와 C만이 남았습니다. B는 행복도가 상, 표준편차가 상입니다. C는 행복도가 하, 표준편차가 하입니다. B는 국민들의 행복의 총합이 크지만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가군이고, C는 행복의 총합은 작지만, 행복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군입니다. (B와 C만을 문제에선 제시했지만 A와 D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한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B와 C에 대해서 제시문 (나), (다)의 관점을 가지고서 평가할 차례입니다. (나)는 행복의 총합과 행복의 형평성 두 가지 중 행복의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문의 부인은 남편이 출유해서 행복해지더라도 자신이 불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복의 전체적 총합, 즉 가족구성원의 행복의 총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가족구성원 사이의 행복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도는 다소 낮지만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C국가군이 B국가군을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다)는 행복의 총합만을 고려합니다. 공리,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을 우선시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의 편차와는 상관없이 행복의 총합이 더 큰 B국가군을 선호할 것입니다.

4) 답안 작성 (논증, 요약의 재구성 및 중립적 표현의 원리와 결합하여)

1문단	제시문 (나)는 행복의 형평성을 중요시하지만 (다)는 각 개인의 행복의 총합을 중요시한다. (나)의 부인은 가정의 행복의 총합보다는 자신의 행복, 즉 형평성을 위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다)는 개인의 행복을 유보하여서라도 공동체 행복의 총합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문단	제시문 (라)의 B국가군은 국민들의 행복의 총합이 크지만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 행복의 산술적 평균은 높지만,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C국가군은 행복의 총합이 적지만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 행복의 산술적 평균은 낮지만, 편차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판단하면 A는 행복도가 낮고 편차도 큰 국가군이고, D는 행복도가 높고 편차도 작은 국가군이다.
3문단	먼저, (나)와 (다) 모두 네 개의 국가군 중에서 D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D국가군은 행복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행복도가 높았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하는 (나)의 입장에 부합하고, 국민들 행복의 총합이 네 국가군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총합만을 중시하는 (다)의 입장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는 (나)와 (다) 모두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인데, 행복도가 낮으며 형평성 또한 낮기 때문이다.
4문단	하지만 B와 C의 국가군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나)는 C국가군을 B국가군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다)는 B국가군을 C국가군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구성원들의 행복의 전체적 총합보다는 행복의 형평을 고려하는 입장이기에 행복의 산술평균이 다소 낮더라도 편차가 작아서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C국가군을 B국가군보다 더 이상적이라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에 의하면 일부 구성원들의 이익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사회적 이익의 총합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면 이는 옳은 행위이다. 따라서 (다)는 형평성이 다소 낮더라도 산술평균이 더 커서 사회 전체적 이익의 크기가 더 큰 B를 C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 학생 답안 첨삭본

1) A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제시문 (가)~(다)는 모두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다. 그러나 행위에 범위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 (나)는 행위의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하는 반면 제시문 (다)는 사회로까지 확장시킨다. 제시문 (가)에서는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자신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제시문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행위만을 언급함으로써 (가)와 동일한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넘어 정부의 정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공리의 원리를 주장한다.

-> 제시문들 간의 공통점으로 대주제를 설정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 문장부터 행복과 행위를 혼동하여 적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부인이 개인적 행복을 추구했다고 해서 (가)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본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에서 개인적 행복의 주체는 부인과 남편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제시문은 타인의 행복이 한 개인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행복의 범위를 한 개인을 넘어 타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2문단

각각의 제시문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다. 제시문 (가)에서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파악한다. 한편, 제시문 (나)에서는 타인에게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위 할 때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와 (다)는 행위의 결과가 타인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결과가 타인의 행복을 감소시킨 사례를 제시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특정인의 장점을 본받아 행위 할 것을 의무로 제시했다. 제시문 (다)에서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의미 있는 행위로 파악한다. 이렇듯 (가)와 (다)는 개인의 행위를 사회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시문 (나)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여 아내의 행복감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준다.

-> 문제를 제대로 읽고 글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1번은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것이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밝히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 측면을 서술한 부분을 보면, 문장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한 결과로써 타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차이

	<p>가 있다는 식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가 결과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박약합니다. 앞선 문단에서는 (가)가 행복의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시켰다고 서술해놓고, 뒤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세대 채점기준에 의하면 논증력이 부족하여 감점요인입니다. 타인의 장점을 본받아 그것을 의무로 할 것임을 제시했다고 하여 이것이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p>
<p>3문단</p>	<p>제시문 (가)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행복에 얼마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비례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렇듯 제시문 (가)~(다)는 행위의 범위, 행복의 조건, 행위의 결과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p> <p>-> 연세대는 본론위주의 글을 쓸 것을 요구합니다. 결론에서 단순히 앞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연세대 채점기준 확인 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차이점을 추가하거나 앞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문제 2]</p>	
<p>1문단</p>	<p>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행복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행복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편차를 중요시하여 얼마만큼의 행복의 평등이 이루어지는가를 중시한다. 따라서 행복도가 높을지라도 표준편차가 크다면 개인들 간의 행복 차이가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작은 국가를 선호할 것이다.</p> <p>이러한 관점에서는 C국가가 이상적이라고 여겨진다. C국가가 B국가에 비해 행복도가 낮을지라도 그만큼 표준편차도 낮기 때문이다. 표준편차가 낮을수록 국민들의 행복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특정 국민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비슷하게 행복한 것이다. 즉, 국민들의 행복감이 비슷하여 표준편차가 큰 B국가보다 실질적으로 행복의 평등이 달성되기 용이하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서는 국민들간의 행복의 평등을 고려하여 표준편차가 작은 C국가를 이상적이라 여긴다.</p> <p>-> 제시문 (나)의 입장을 밝혀주고, 바로 어떠한 국가군을 이상적으로 생각할지를 밝혀준 점 좋았습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친절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행복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하고, 따라서 표준편차까지 고려하여 행복의 평등을 중시해야한다.’로 이어지는 문장은 논증력이 부족해보입니다. ‘A이면 B이다.’라는 논증이라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야하는데, 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행복까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때 이 입장이 행복의 평등을 고려해야하는 입장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논의의 깊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 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거나,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거나, 아니면 A와 D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2문단</p>	<p>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증진되면 사회의 행복까지 증진된다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중요시 한다. 공동체의 행복이 개인들의 행복까지 보장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도가 높을수록 국민 모두의 행복감이 높은 것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표준편차를 고려하기 보다는 행복도에 초점을 둘 것이다.</p> <p>이러한 공리의 관점에서는 B국가를 이상적으로 여긴다. C국가에 비해 B국가가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높기 때문이다. B국가는 표준편차가 C국가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사회의 행복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높은 B국가를 이상적으로 여긴다.</p> <p>-> 논증력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개개인들의 행복의 합인 공리가 커지는 방향으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공동체의 행복이 개인들의 행복까지 보장해준다는 논리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개인들의 행복이 유보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계속 논증력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독해력의 문제로 보입니다.</p>	
<p>총평</p>	<p>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시도한 점은 좋았으나 그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독해력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에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색한 서술어가 자주 눈에 띕니다.</p>	
<p>평가</p>	<p>문제 1</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size: 2em;">CO</p>	<p>문제 2</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size: 2em;">CO</p>

2) B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p>제시문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지만 영향성과 대립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p> <p>-> 대주제로 공통점을 간략히 논해준 점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미리 밝혀주어 추후의 논의가 영향성, 대립성 두 가지로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을 제시하여 채점자의 집중도를 높인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p>
2문단	<p>제시문 (가)는 제시문 (나),(다)와 개인과 타인의 행복의 영향성에서 상이한 관점을 보인다.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독립적 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제시문 (가)에 드러난 사회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운명이 있고, 따라서 각자의 의무와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 (나)는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다)는 개인들의 행복이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p> <p>-> 영향성에서 (가)는 독립적, (나), (다)는 상호의존적이라고 분류를 잘했고, 그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여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를 (나), (다)와 구분하고 뒤에서 (나)와 (다)의 차이를 밝히는 구조를 취한 경우 (가)의 내용은 1번 밖에 쓸 기회가 없으므로 이 문단에서 (가)는 좀 더 자세히 써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예시답안에서 쓴 대로 사회체제에 순응하는지 여부 혹은 다른 관점에 의한 분석 등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p>
3문단	<p>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대립성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제시문 (나)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대립 한다고 본다.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행복과 반비례한다. 남편은 출유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데에 비해 아내의 행복도는 남편이 집에 없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다)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공존한다고 본다. 제시문 (다)에서 제시한 공리의 원리는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전체의 행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에서의 행복증진은 결국 공동체에 속해있는 개인들의 평균적인 행복증진과 영향이 있다고 본다.</p> <p>-> 두괄식으로 (나)와 (다)의 차이를 밝혀준 점 좋았고, 그 근거도 명확하고 단순하여 좋습니다. 크게 손 댈만한 곳이 없는 답안입니다. 하지만 1000자에 못 미치는 답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분량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량에도 신경을 써야할 듯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수준이 대체로 평이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본기는 확실히 다진 학생 같으므로 좀 더 다각도의 분석이나 논의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문제 2]	
<p>1문단</p>	<p>제시문 (라)의 도표는 27개 나라 행복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의 Y축과 X축은 산술평균 즉, 각각 응답자 전체의 답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즉, 그 점수와 실제 점수간의 차이정도를 클수록 높은 값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X축을 기준으로 위는 표준편차가 높고 아래는 낮다. Y축을 기준으로 우측은 산술평균이 높고 좌측은 산술평균이 낮다. 즉, 국가군 B는 산술평균과 표준편차가 둘 다 높고, 국가군 C는 산술평균과 표준편차가 둘 다 낮다. 이는 국가군 B는 전체 행복도는 높지만 행복의 격차가 심함을 보여주고, 국가군 C는 전체 행복도는 낮지만 행복의 격차가 적음을 보여준다.</p> <p>-> ‘즉, 각각 응답자 전체의 답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즉, 그 점수와 실제 점수간의 차이정도를 클수록 높은 값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보여준다.’ ‘즉’이라고 하여 결론을 내릴 것처럼 문장을 전개하더니 다시 ‘즉’이라고 연결사를 썼는데, 이는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연세대 채점기준 - 한 문장에 연결사는 한 번만 쓸 것) 다른 학생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쉽게 적길 바랍니다. 현학적이거나 난해한 문장이 많이 들어간 글은 절대 좋은 글이 아닙니다. 쉬운 문장으로, 쉬운 구조로 쓴 글이 좋은 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논증이 잘 된 문단으로 보입니다. 근거 -> 명제도출로 논증을 하었는데, 두괄식으로 명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다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괄식을 선호 - 연세대 채점기준)</p>
<p>2문단</p>	<p>제시문 (나)에서 보면 국가군 C가 더 이상적이다. 제시문 (나)는 전체 행복도가 높은 낮은 개별 편차가 심하면 좋지 않다고 본다. 이 제시문 에서의 남자가 하는 행동은 남자의 행복도를 높여준다. 하지만 여자의 행복도는 떨어뜨린다. 결국 이러한 격차는 전체 행복마저 깨뜨리려 한다. 이것이 국가일 경우, 문제는 더욱 커져 국가의 존재마저 위협 할지 모른다.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강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행복도가 높아도 개별행복격차가 커서 위험한 B보다는 전체 행복도가 낮더라도 행복격차가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나 한쪽으로 몰린 희생이 덜 강요될 수 있는 C가 더 이상적인 국가상이다.</p> <p>-> 무난한 답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일 경우, 문제는 더욱 커져 국가의 존재마저 위협할지 모른다.’라는 논증은 너무 나아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p>
<p>3문단</p>	<p>반면,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국가 간 B가 더 이상적이다. 제시문(다)는 공리의 원리를 중시하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의 총합이 높을수록 옳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일 경우, 개개인 각자의 행복도 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 행복도의 총합이 더 우선시된다. 이 공동체가 국가일 경우 제시문(다)는 개인들 간의 행복편차보다는 전체 행복도를 더 중시하게 되므로 그러한 B를 더 이상적국가로 본다.</p> <p>-> 우수한 답안입니다. 전체적으로 글을 쉽고 명쾌하게 잘 썼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다면적 분석이나 논의의 깊이에 신경을 써야할 듯합니다.</p>

총평	글을 쓸 줄 아는 학생의 답안입니다. 합격에 가까운 답안이라고 보이지만, 완벽한 합격을 위해서는 조금 더 논의의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문제 1	문제 2
	B+	A-

3) C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p>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는 각각 일치, 불일치, 무관의 관계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다)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공리에 따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타인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자신의 쾌락이 상승한다면 그 결정은 무가치하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어떤 결정의 가치 판단은 결정 주체의 이익 최대화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p> <p>-> 두관식으로 일치, 불일치, 무관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힌 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독해력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의 공리의 원리는 공동체이익의 총합을 위하여 행위 하는 규범을 말하는데, 이 원리를 개인에 적용시킨 오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하여야 한다는 말이지,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해야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p>
2문단	<p>이와 달리, 제시문 (가)와 (나)는 양극단의 관계를 보여준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지위는 운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기에,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 타고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주인으로 태어났다면, 자신이 '훌륭한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노예의 행복을 위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훌륭한 주인' 밑에서 행복한 노예가 탄생하게 된다. 이로 보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일치한다는 (가)의 주장이 도출된다.</p> <p>-> 또, 독해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훌륭한 주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 행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고 이는 노예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예가 행복하려면 주인과 무관하게 자신이 노력하여 훌륭한 노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p>
3문단	<p>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불행임을 보여준다. (나)의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내의 행복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한다. 아내는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관념적인 것을 강요한다. 남편은 유교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뜻을 좇아 행복하게 사는 반면, 아내는 유교적 가치를 강요당하며 행복한 남편을 기다리며 불행하게 살아야하는 상황이 된다. 이를 보면, 한 개인의 행복이 타인에게 행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힘들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불일치하는 것이다.</p> <p>->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쓰려다 마지막 문장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논증은 좋았지만 마지막 논증은 의문이 생깁니다. 남편의 행복이 부인에게 불행을 가져왔다고 해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불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는 추론할 수 있겠으나 항상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불일치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p>

[문제 2]		
1문단	<p>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C국가군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B국가군이 더 이상적인 국가군이다. 제시문 (나)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를 보여준다. 개인의 행복으로 타인이 불행해지며, 타인인 아내는 이 상황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아내는 자신의 행복이 남편과 동등해져야함을 주장한다. 이로 볼 때, 행복도의 평균이 높지 않더라도, 모두의 평등한 행복을 주장하기에 표준편차가 작아야 한다.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국민들의 행복도는 평균에 몰려있다는 뜻이 되므로 보다 더 평등한 것이다. C국가군은 27개 전체 나라의 행복도의 산술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 국가군 중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균 행복도가 낮지만 가장 평등한 C국가군이 제시문 (나)사회의 이상적 국가군이 된다.</p> <p>-> 두괄식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명시한 점 좋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이 사회에서 아내는 자신의 행복이 남편과 동등해져야함을 주장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라는 말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행복이 남편과 동등해져야함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제시문의 내용을 너무 확대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려는 것에 반대하며 자신의 행복도 고려해야함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동등해져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p>	
2문단	<p>이와 달리,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B국가군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이다. 제시문 (다)는 모든 판단이 공리의 원리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인 국가는, 개인들 이익의 총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는 개인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보다는 모든 구성원 이익의 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즉, 특정 또는 일부의 개인 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결정이라면 실행하는 것이 옳다. 즉, 구성원들의 이익의 편차가 크더라도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면 표준편차가 큰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B국가군은 27개 국가의 평균 표준편차를 넘는,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도의 산술평균 또한 27개 국가의 평균을 넘는다. 따라서 B국가군의 특징인 평균적으로 높은 행복도는 제시문 (다)의 공리의 원리와 잘 맞아떨어지며 (다)의 이상적인 국가군이 된다.</p> <p>-> (다)의 입장에서는 D국가군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입니다. B는 C와 비교하였을 때 좀 더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보아야합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p>	
총평	전반적으로 평을 하자면 독해력이 부족하고, 논증이 가끔씩 너무 나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	문제 2
	C+	B+

4) D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p>제시문 (가),(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행복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본다. 스토아학파는 불행이 개인에 국한된 것이며 운명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복도 자신의 운명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운명에서 훌륭하게 생활하는 것이 행복이지 그것이 타인의 행복과 관련성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p> <p>-> 두관식으로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었다는 점 좋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바를 잘 풀어냈고, 전체적으로 우수한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을 더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p> <p>‘먼저,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스토아학파는 행복과 불행이 운명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개인적인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면 운명에 의해 정해진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해야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행복해질 수 있고, 이는 타인의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p>
2문단	<p>반면, 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가 타인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나)의 남편이 계속 출유하려고 하자 아내는 절연을 하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약속은 서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남편은 멋대로 행동하고 아내는 신의를 지켜야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과의 공평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어느 한 쪽의 행복이 더 커지면 균형이 깨져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p> <p>-> (나)와 (다)의 공통점을 대주체로 잘 설정하였습니다. (나)가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에 대한 근거도 적절합니다.</p>
3문단	<p>제시문 (다) 또한 개인의 행복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동의하나 제시문 (나)가 개인 대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시문 (다)는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공리의 원리란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며 당사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에 국한되지만 공동체 전체일 경우 공동체의 행복을 뜻한다. 공동체의 행복이란 사회 구성원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으로 전체 구성원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 가장 클 때가 이상적이다. 따라서 공리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공평함을 주장했던 (나)와는 달리 제시문 (다)는 구성원들의 평등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개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행복을</p>

	<p>높이는 일이라면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된다.</p> <p>-> 제시문 (다)가 (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복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박약해보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주체로 본다는 것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문장과 쉬운 구조, 쉬운 논증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우수한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p>
[문제 2]	
1문단	<p>제시문 (라)의 표는 각 나라의 행복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B군에 속하는 나라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 또한 높다. 반면, C군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B군에 비해 낮다. 평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의 총합이 인구 수 대비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표준편차가 높다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p> <p>-> 표의 해석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흠 잡을 곳이 없습니다.</p>
2문단	<p>제시문 (나)의 아내는 상대방과 자신의 불공평함을 토로하며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공평한 관계를 원한다. 이러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시문 (다)는 C군의 국가를 이상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만족스러우면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C군의 국가들의 표준편차가 비교적 낮게 분포한 것은 물론 개인의 목표한 만족감의 마지노선에 다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회의 재화나 자원이 어느정도는 공평하게 분배되었음을 뜻한다. 완전히 공평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심리적 만족감은 비슷하게 지닌 것이다. 따라서 형평성을 중시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표준편차가 높은 D보다 C군을 이상적으로 여길 것이다.</p> <p>-> ‘인간은 보통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만족스러우면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처럼 자신의 신념에 기대 결론을 짓고 있는 문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표현이 서투른 부분이 있어 글의 깊이가 부족해보입니다.</p>
3문단	<p>반면, 제시문 (다)와 같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B군의 나라들이 이상적일 것이다. 공리주의 예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사회의 쾌락의 총합을 중요시하는데 행복도의 평균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을 합쳤을 때 행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원배분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나타날 경향이 크다. 하지만 공리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다른 개인의 희생은 암묵적으로 강요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표준편차가 C군보다 조금 큰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B군의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택할 것이다.</p> <p>-> 그다지 손을 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우수한 답안입니다.</p>
총평	<p>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답안입니다. 다만, 자신의 신념 또는 사회규범에 기대어 논증을 하는 것, 표현이 서툰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p>

	문제 1	문제 2
평가	<i>AO</i>	<i>AO</i>

5) E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p>제시문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주제로 삼고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p> <p>제시문 가의 로마인들은 개인의 불행을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운명에 따라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도 개인만의 문제로 간주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은 운명의 결과이며, 타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p>
2문단	<p>반면 제시문 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제시문 나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대립의 방식으로 연관되어있다. 남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아내는 경제적 부담을 전가 받아 불행해졌다. 반대로 아내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사대부로서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반대한다. 이때 아내는 자신이 불행한 원인을 남편의 행동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신의를 여자에게만 강요하는 사회 제도로 꼽고 있다. 이는 운명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시문 가의 로마인들과 비교되는 능동적 태도이다.</p>
3문단	<p>제시문 다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이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여기서 공리의 원리란 개인 또는 공동체의 행복이 증감되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이다.</p>
4문단	<p>이 때 제시문 나와 다 또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상충될 경우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나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은 남편의 공평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아내가 불행해졌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당한 행동이 된다. 그러나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비록 불행하더라도 남편을 비롯한 공동체의 행복이 증진된다면 아내의 불행은 용인될 수 있다. 반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공동체의 행복이 감소된다면 아내의 행동은 옳지 못한 것이 된다.</p>
<p>-> 아주 우수한 답안입니다. 크게 (가)를 (나), (다)와 구분하고 (나)의 내용을 적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와 직접비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가 (나)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잘 지적하였고, (다)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한 점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굳이 하나 지적하자면, 제시문 가, 나, 다로 표기하지 말고 문제대로 (가), (나), (다)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문제 2]	
1문단	<p>제시문 라는 27개국 국민들의 행복도를 나타낸 표이다. 이때 표의 x축에 해당하는 평균은 국가 당 총 행복량을 국민 수로 나눈 것으로, 이는 각국의 행복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표의 y축에 해당하는 표준편차는 각국 내의 행복도가 얼마나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국가군 B는 x축의 산술 평균 이상 평균 행복도와 y축의 산술평균 이상의 표준편차를 가지는 집단이다. 반면 국가군 C는 x축의 산술 평균 이하의 평균 행복도와 y</p>

	<p>축의 산술평균 이하의 표준편차를 가진다.</p> <p>-> 불필요한 문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에 따라 국가군 B는 X축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로 적고 (나)와 (다)가 어느 국가군을 더 이상적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분량을 더 할애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p>
<p>2문단</p>	<p>제시문 나는 행복량이 극대화된 현상 보다 개인 간의 편차가 작은 행복의 양상을 더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행복이 추가되거나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총 행복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집단 내 개인들 간의 행복량의 차가 작은 국가군 C가 이상적인 국가에 해당한다.</p> <p>->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행복이 추가되거나 감소되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연세대 해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인용하자면 학생이 자신의 신념이나 규범에 기대어 논증을 전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식의 논증을 할 것이 아니라 제시문 (나)가 왜 행복의 총합보다 편차를 더 중요시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제시했어야 합니다.</p>
<p>3문단</p>	<p>제시문 다는 개인 간의 편차는 중요시 하지 않고, 공동체가 가지는 행복량이 최대가 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다. 개인들이 가지는 행복의 총합이 곧 공동체의 행복량이므로 공동체가 가지는 행복량의 극대화에 주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때, 제시문에서 행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수의 희생은 용인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량이 최대라고 해서 개인간의 편차가 극단적인 국가군은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국가군이 아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평균 행복량이 전체집단의 평균 이상 이면서 표준편차, 즉 집단 내 행복의 편차가 극심하지 않는 국가군 B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국가군이 될 수 있다.</p> <p>-> ‘이때, 제시문에서 행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수의 희생은 용인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량이 최대라고 해서 개인간의 편차가 극단적인 국가군은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국가군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 소수의 희생은 용인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용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익의 총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일정 부분 소수의 희생은 용인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토대로 본다면 평균 행복량이 전체집단의 평균 이상 이면서 표준편차, 즉 집단 내 행복의 편차가 극심하지 않는 국가군 B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국가군이 될 수 있다.’라는 문장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복의 편차가 극심한지 아닌지의 기준이 모호한데, 이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하였으므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p>
<p>총평</p>	<p>쉬운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학생의 답안입니다만, 자료 분석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p>

	문제 1	문제 2
평가	A+	C0